

## 세조는 정인지에게 기생을 선물했다

### '국왕의 선물' 심경호 지음

선물의 의미가 퇴색한 지 오래다. 마음을 담아 정을 나누는 의미의 선물이 대가성 의미를 담으면서 공직자들에게는 경계 대상이 된 지 오래고, 명절 때면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부적절한 선물을 받는 공직자를 적발하려는 감시도 강화된다.

주는 사람이나 대가성도 없고 탈도 없는 순수한 선물이라고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담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게 요즘 세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은 마음과 마음을 맺어주는 끈으로, 달콤한 말과는 다른 위력을 발휘한다.

조선시대는 어땠을까. 그나마 당시 최고 권력자인 임금이 내려준 하사품이라면 어떨까. 임금이 주는 선물은 어떤 의미를 가진 걸까.

'국왕의 선물'은 조선 왕조 27명의 임금이 사대부나 외국 사신들에게 내려준 선물의 종류를 비롯, 담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면서 당시 역사와 문화를 짚어내는데 초점을 맞춘 책이다.

책을 읽어가다 보면 조선 왕조 27명의 임금이 신하와 공신, 부마, 지방관 등 사대부와 왕실 등 고위층 뿐만 아니라 군인, 백성, 귀화인, 외교 사절, 자신을 길러준 유모, 궁궐 시녀까지 다양한 신분의 인물들에게 선물을 '내려준' 점에서 흥미를 갖게 한다.

그 종류도 황금에서부터 옷, 무기류, 말과 암장, 술과 곡물, 과일 등 음식류, 소금, 약재에 서적, 종이, 얼음, 질문지, 관비인 기생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가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세종은 강원도 이천의 온천에 갔다가 함께 갔던 대사헌 이승손에게 온천욕을 허락하는 '선물'을 내렸고, 세조는 정인지에게 기생을 하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물을 내린 이유도 공을 세웠거나 정책상 백성에게 감사나 위로의 뜻을 전하는 등 그때그때 다르다. 책은 하지만 선물이 군신간의 의리를 강화시켜 주는 보조 장치로서 큰 역할을 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의미로 이뤄졌는지를 따져보면서 단순한 선물이 아



닌, 관직과 마찬가지인 공기(公器)로 불리며 국왕의 권력 행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에게 국권을 강제로 빼앗긴 뒤 순종이 한국 의병을 비적으로 규정하는 조칙을 내리고 일본군에게 1000원의 하사금을 내려준 점을 언급하면서 '공기'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사례 등도 함께 엮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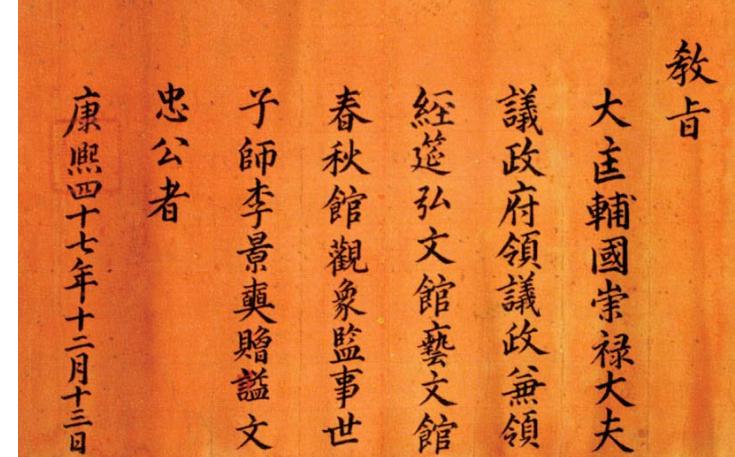
또 책은 국가 권력의 기반을 인정시키기 위해 공신을 대우하는 취지에서 선물을 활용하는가 하면, 종친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선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선물 받은 당사자들의 태평 표시도 담아내 관심이 쏠린다. 당시 국왕의 선물을 받은 신하의 경우 반드시 감사의 뜻을 담은 '사은전(謝恩箋)'을 올렸고 하사품 중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기념하는 내용을 작성, 대대로 전했다는 내용도 흥미롭다.

저자인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는 책을 통해 조선시대 통치 방식과 문화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정치 권력과 선물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살펴보고 현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선물 수수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를 되물는다.

〈책문·1·2권 각 2만4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숙종 34년(1708년) 12월 13일, 이경석에게 문충공(文忠公)의 시호를 내린 교지.

〈경기도박물관 제공〉

### 고단한 삶, 다시 시작하는 힘

#### '꽃은 우연히...'

#### 지장스님 지음

'꽃은 우연히 피지 않는다'는 책은 지장스님이 그동안 공부하고 수행하면서 써왔던 글들을 모아 엮은 에세이다.

흔들리는 삶을 단단하게 잡아주었던 작은 원칙들과 오늘의 나를 되돌아보며 내일의 나를 다짐하고 격려했던 시간의 기록들을 담담히 써내려갔다. 또 느슨해진 마음을 자극하고 다시 긴장케 한 지혜의 말들도 담아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



는 것처럼 욕심·분노·어리석음도 그 조건과 원인이 없어지면 눈녹듯 사라지면서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는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인생에 대한 예의로서의 12가지 태도'와 '내 안의 힘이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들' 등 7가지 주제에 맞춰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고단한 삶을 쉬어가며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조언을 해준다.

〈책읽는 수요일·1만4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고전 속에서 삶의 해법을 찾다

#### '한비자, 법法술術로...'

#### 조득필 지음

고전은 과거를 통해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얻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만화 '한비자, 법法술術로 세상을 논하다'는 '만화로 재미있게 읽는 고전 지혜 시리즈'의 첫 번째로, 어렵고 난해한 고전을 만화라는 틀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 책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구전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나볼 수 있으며 한비자의 법과 술을 통해 인생의 철학과 교훈, 지혜 등 인간 내면의 세



계를 파악한 내용들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어렵게 느꼈던 고전의 가치를 현재의 삶 속에서 재창조하여,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에 적용하여 삶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역사나 이야기를 통해 보고 들어왔던 내용들을 삶기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각 주제별로 담고 있는 교

훈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배려가 눈길을 끈다. 〈경매출판·1만2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신간

▲통은 틈과 잣다= 지난 2001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손홍규의 세 번째 소설집. 예전보다 좀 더 깊어진 고민과 예리한 시선으로 비틀린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면면을 들춰내고 있다. 낯설고 꽉꽉한 도시 서울, 그곳에서 가난한 외부자로서 느끼는 슬픔과 고로움을 특유의 의뭉스러운 유쾌함으로 풀어낸다. 〈문화와 지성·1만1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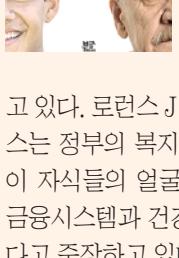


한 기록이다. 중국 최북단 도시인 헤이허(黑河)에서 시작해 하얼빈(哈爾濱), 선양(瀋陽), 베이징(北京), 다롄(大連), 칭다오(青島),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와 홍콩까지 내려가며 중국의 역사 문화 지리 등에 대해 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다. 기행문 형식을 띠면서 중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 생활 전반을 다루는 등 역사인문서 역할도 하고 있다.

〈흐름출판·1만6000원〉



▲드뢰즈의 씨네마톨로지= 씨네마톨로지라는 영화와 증후학의 합성어로, 드뢰즈가 제시한 이미지 분류학을 말한다. 이미지 존재론의 철학자, 개념적 배경을 고찰한 뒤 영화사의 유고들과 작품을 해석하며 씨네마톨로지의 철학적, 정치적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 표현주의·서정추상·네오리얼리즘 등 영화 유고들과 주요 작품에 대한 배경설명이 상세하고 영화 스텔릿이 삽입돼 있다. 〈갈무리·1만9000원〉



▲세대충돌= 미국의 저정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개인들의 금융계획까지 제시하고 있다. 로런스 J 코틀리코프 보스턴대 교수와 투자전략가 스콧 번스는 점부의 복지 프로그램에 긴 거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거품이 자식들의 얼굴 앞에 터질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금융시스템과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글 북스·1만5000원〉

▲개으른 산행= 나무박사인 우종영의 위도 37도 이남 제주에서 울릉도까지 남부권 숲길 18곳을 다닌 탐방기다. 저자가 직접 그려 넣은 나무지도에 등산 난이도를 5개의 별표로 표시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 점도 관심을 끈다. 〈휴·1만6000원〉

▲배낭에 담아 온 중국= 대만에서 손꼽히는 지식인으로 꼽히는 우상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아들과 함께 중국을 종단

### 독서 기록… 문학의 본질에 질문을 던진다

#### '그래도 책 읽기는 계속된다'

#### '로쟈의 세계문학 다시 읽기'

#### 이현우 지음



인문학 전문 서평가로 알려져 있지만 이씨는 러시아문학을 전공한 문학 도다.

‘그래도 책 읽기는 계속된다’는 지난해 10월에 출판된 책이다. 방대한 독서량은 물론이고 특히 인문학 분야를 소회해 정제된 글쓰기로 풀어내는 그의 능력을 탐색하는 책이다.

지난해 '책을 읽을 자유'를 펴낸 그가 두권의 서평집을 함께 내놓았다.

'그래도 책 읽기는 계속된다'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의 독서 기록이다. 이번 서평집에 소개된 서평은 모두 86편으로 독서, 인문학, 삶, 정의, 정치로 끊임없이 풀어낸다.

책 사이 사이에 걸쳐 있는 '16문 16답', 활자와 글자, 글자와 글자, 글자와 글자 등으로 구성된 글들이 특별한 글이다. 각 작품마다 '겹쳐 읽기'라는 글을 덧붙여 함께 읽으면 좋을 만한 명작들을 소개하고 있다.

또 2부 '세계문학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세계 시민이 된다는 것', '세계화 시대 언어의 운명' 등의 글을 통해 세계 문학의 본질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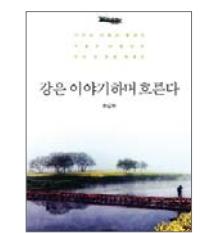
〈한길사·1만8000원〉〈오월의 봄·1만4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영산강 따라 흐르는 문화와 역사의 숨결

#### '강은 이야기하며 흐른다'

#### 한승원 지음



라는 명성에 걸맞게, 강 유역 곳곳에 남아있는 누각, 정자와 포구 등에 암탉 이야기가 생생하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영산강변 문화와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고 '강 앞에 서면 사람들은 하나의 풍경이 되고 역사도 강바닥을 디디고 선 갈대숲이나 수양버들이나 개개비나 두루미나 황새나 해오라기나 청둥오리처럼 한 자락 또 한 자락의 풍경이 된다'는 말도 한줄 정겹게 다가온다.

입에 올리기만 해도 가슴이 뜻을 찾는 '목포의 눈물'의 고장으로 소개하면서 풀어놓는 목포 출신 저작자에게 예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김영사·1만5000원〉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 그냥 지나쳐버린 공간, 일층과 지하일층 사이

#### '1F/B1'

#### 김중혁 지음



소설가 김중혁의 글에는 특유의 리듬이 있다. 그 리듬을 타고 전해지는 상상력은 무릎을 치게 만든다.

소설집 '악기들의 도서관'이나 장편소설 '미스터 노래일', 산문집 '뭐라도 되겠지' 등과 요즘 쓰고 있는 음악 관련 칼럼에서도 느껴지는 것들이다.

세번째 소설집 '1F/B1(일층, 지하일층)' 역시 그리듬과 상상력이 살아있다. 그가 이번 소설집에서 천착한 것은 '도시다'. '나는 이 속된 도시가 좋다. 여기서 살아갈 것이다'라는 작가의 말을 남겼다.

‘도시 연구가 주특기만 어쩌다 보니 낙서를 따라 다니게 된’ 주인공과 도시계획 따위를 만들 수 없는 골목과 예기치 못한 빙터들이 등장하는 'C1+y=[8:]', SF 장르의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3개의 식탁, 3개의 담배' 등 작가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7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다.

〈문화동네·1만20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 책 꽂이

##### ▲통은 틈과 잣다= 지난 2001년 '작가세계'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한 손홍규의 세 번째 소설집. 예전보다 좀 더 깊어진 고민과 예리한 시선으로 비틀린 일상을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면면을 들춰내고 있다. 낯설고 꽉꽉한 도시 서울, 그곳에서 가난한 외부자로서 느끼는 슬픔과 고로움을 특유의 의뭉스러운 유쾌함으로 풀어낸다. 〈문화와 지성·1만1000원〉

##### ▲개으른 산행= 나무박사인 우종영의 위도 37도 이남 제주에서 울릉도까지 남부권 숲길 18곳을 다닌 탐방기다. 저자가 직접 그려 넣은 나무지도에 등산 난이도를 5개의 별표로 표시하는 등 세심하게 배려한 점도 관심을 끈다.

〈휴·1만6000원〉

##### ▲배낭에 담아 온 중국= 대만에서 손꼽히는 지식인으로 꼽히는 우상후이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아들과 함께 중국을 종단

고 있다. 〈휴·1만6000원〉